

호랑이 변신 장영석 “3루 내게 맡겨주오”



플로리다
TIGERS
캠프를 가다
김여울 기자

KIA, 3루 공백 메울 카드로
캠프前 히어로즈와 맞트레이드

박찬호 유격수 전격 배치
김선빈과 새 키스톤 콤비
장영석 투입으로 내야 틀 완성

맷 감독, 타점·장타 능력 기대
캠프에선 수비 실력 점검

장 “포구 연습 가장 심혈
좋은 순간 복기하며 시즌 준비
팬 응원 생각하면 온 몸에 소름
절대 실망 시키지 않겠다”

새 옷을 입은 내야수 장영석이 KIA타이거즈의 2020시즌 ‘깜짝스타’를 꿈꾼다. KIA는 플로리다 캠프 출국 전날 전격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외야수 박준태와 현금 2억원을 키움 히어로즈에 내주고 내야수 장영석을 받아오는 조건이었다. 대만행을 준비하고 있던 장영석은 행선지를 미국으로 바꿔 KIA 캠프에 합류했다. 일단 KIA에는 빈틈을 잘 메운 트레이드라는 평가다. 3루는 이번 시즌에도 KIA의 고민이었다. 지난 시즌 이범호가 은퇴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3루에는 일단 박찬호가 섰다.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한 박찬호는 이범호의 후계자로 지목돼 ‘25번’도 물려받았지만 3루는 박찬호 개인이나 팀에게는 아쉬운 자리다.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는 박찬호가 유

격수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 그에 맞춰 KIA는 이번 캠프에서 박찬호를 유격수로 해서 김선빈을 2루로 돌려 새로운 ‘키스톤 콤비’를 구성했다. 그리고 때마침 장영석이 투입되면서 일단 내야의 큰 틀은 그려졌다. 윌리엄스 감독은 데이터를 통해 지난 시즌 장영석이 보여준 타점 능력과 한방을 주목했다. 그리고 실전을 통해서 그의 수비 실력까지 점검하고 있다. 일찌감치 팀 적응을 끝낸 장영석은 윌리엄스 감독의 의중에 맞춰 견고함에 집중하고 있다. 장영석은 “팀 분위기가 좋아서 즐겁게 훈련하고 있다. 다른 캠프보다 마음가짐이 다른데 그렇다고 너무 욕심이 앞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잘했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캠프를 마칠 것이다”며 “감독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수비다. 수비를 보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수비에서 더 집중해야 할 것 같고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는 감독님이라서 거기에 맞게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비에서도 특히 ‘포구’가 장영석이 신경 쓰는 부분이다. 장영석은 “포구하는 부분 준비를 제일 잘 해야 할 것 같다”며 “송구는 나름대로 자신 있다. 상황별 생각을 빨리 정리하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KIA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장영석을 통한 타격의 폭발력 향상이다. 장영석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차분하게 좋은 기억을 살리겠다는 각오다. 장영석은 “작년에 타점 내면서 괜찮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너무 신경 쓰면 마이너스 되니까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하겠다”며 “기대 많이 해주시는데 부응할 수 있게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빨간 유니폼이 잘 어울리는 장영석은 상대 팀으로 경험했던 KIA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기다리고 있다. 장영석은 “사람들이 유니폼 잘 어울린다고 한다. 원래 있던 사람 같다고 한다”며 “KIA팬들의 응원은 엄청나다. 그거 생각하면 소름 돋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소름이 났었다. KIA팬들이 많이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항상 실망시키지 않게, 야구 외적으로도 실망시키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ool@kwangju.co.kr

김광현, 출발이 좋다



세인트루이스 시범경기 무실점
2경기 3이닝 무피안타...선발 청신호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생애 첫 메이저리그 선발 등판 경기에서 완벽한 투구를 펼치며 세인트루이스 선발진 진입에 청신호를 쫓았다. 김광현은 2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로저 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2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잡는 동안 단 한 명에게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았다. 외야로 날아간 타구가 한 개도 없을 만큼 상대 타선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김광현은 1회 초 우타자 조너선 비야를 3루 땅볼로 처리하며 기분 좋게 시작했다. 볼 2개를 먼저 던져 볼 카운트가 밀렸지만, 이후 공 3개를 스트라이크존에 넣으며 메이저리그에서 779경기를 뒀던 비야를 범타 처리했다. 김광현은 후속 타자 브라이언 앤더슨을 풀 카운트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김광현은 코리 디커슨도 1루 땅볼로 잡아내며 1회를 삼자범퇴로 막았다. 2회에도 패투가 이어졌다. 김광현은 상대 4번 타자 헤수스 아길라를 공 5개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다. 아길라를 2018년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뛴 때 35홈런을 친 거포다. 그러나 김광현은 주눅 들지 않고 아길라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맷 조이스를 유격수 뜬공으로 잡은 김광현은 이산 디아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고 예정된 2이닝을 마쳤다. 투구 수는 29개였고, 이 중 18개가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했다. 메이저리그 칼럼니스트 제프 존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날 김광현의 최고 구속은 시속 94마일(151km)이었다. 구속에 변화가 없고, 치기 힘든 매우 저저분한 공을 던졌다”고 전했다. 김광현은 23일 뉴욕 메츠와 시범경기에서 5회 팀의 세 번째 투수로 구원 등판하며 빅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김광현은 1이닝 동안 볼넷 1개를 내줬지만, 피안타 없이 삼진 2개를 잡으며 무실점했다. 27일 경기 내용은 더 좋았다. 작구 최고 구속도 시속 148km(23일)에서 151km로 끌어 올렸다. 올해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중간 성적은 2경기 3이닝 무피안타 무실점 5탈삼진이다. 세인트루이스 선발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성적표다.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이자, 첫 선발 등판한 27일에는 세인트루이스 주전 포수 아디에르 몰리나와 호흡을 맞추는 기분 좋은 경험도 했다. 김광현은 23일 메츠전에서는 유망주 앤드루 키즈너와 배터리를 이뤘다. 또한, 27일에는 2017·2018년 KBO리그 SK 와이번스 사령탑이었던 트레이 힐만 마이애미 코치 앞에서 호투를 펼쳤다. 김광현이 상대한 마이애미 타자들도 빅리그 주전급 선수들이었다.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좌완 에이스의 훈장을 달고 빅리그에 도전한 김광현이 또 한 번 허들을 기분 좋게 넘었다. 이날 세인트루이스는 7-8로 역전패했다. 마운드에 오른 세인트루이스 선수 7명 중 피안타 없이 등판을 마친 투수는 김광현뿐이었다. /연합뉴스

사도스키 “ML선수 중 KIA 스타일 찾는 중”

전 롯데 투수로 활약
올 KIA 해외 스카우트 담당
메이저리그 캠프 순회
“팀 컬러 맞는 선수 데려올 것”

“KIA 팬들 안녕하세요. 올해 응원 잘 부탁드립니다.” 한글로 KIA 팬들에게 인사를 건넨 그가 이내 영어로 “(한국말을) 많이 알아버렸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했던 사도스키가 해외 스카우트 담당으로 KIA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선수로 국내 야구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한글로 개인 SNS까지 운영할 정도로 언어 감각이 뛰어난 그는 지금도 한글을 익숙하게 읽고 듣는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롯데에서 투수로 활약했던 그는 2015년부터는 롯데의 해외 스카우트 코치를 맡았었다. 지난 19일 KIA 플로리다 캠프에 참가해 새

식구들과 시간을 보낸 사도스키는 메이저리그 캠프 일정에 맞춰 내달 1일 애리조나 쪽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도스키는 “이곳에 와서 좋다. 해외 스카우트 트리가 3월 1일까지 있다가 애리조나 쪽으로 가서 메이저리그 캠프를 돌아볼 예정이다”며 “최고의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 머리를 많이 써야 할 것 같다.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KIA 스타일의 선수들이 있다. 팀 상황에 맞는 그런 선수들이 KIA 선수로 많이 왔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KIA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을 찾겠다는 그는 KBO리그 시절 ‘KIA 스타일’은 아니었다. 사도스키는 “KIA 전에서 승리투수가 된 적이 없다. 이기다가도 내가 마운드에서 물러나면 팀이 지기도 했다”며 “이길 수 없으면 즐거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KIA 전에서 즐기지만 했다”며 웃었다. 기억나는 전적에 대해서는 작은 키로 자신을 괴롭혔던 김선빈과 함께 나지원을 꼽았다. 사도스키는 “대신 최희섭 코치는 나를 싫어할 것이다. 최희섭 코치에게는 강했다”며 “송지만 코치도 넥센에서 잘했었다”고 돌아봤다.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시범경기 전면 취소 KBO “코로나 확산 방지 최선”

코로나 19로 K리그에 이어 KBO리그도 제동이 걸렸다. KBO가 27일 올 시즌 시범경기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4일 한국프로야구 연맹은 3월 1일 예정됐던 K리그 개막을 잠정 연기했다. KBO의 결정에 따라 3월 14일 개막할 예정이었던 시범경기 50경기 전 경기가 치러지지 않는다. KIA 타이거즈는 14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10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KBO의 시범 경기 전체 일정이 취소된 경우는 1983년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KBO와 10개 구단은 최근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선수단과 관중의 안전을 위해 시범경기 취소를 결정했다. 한편 KBO는 오는 3월 3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정규시즌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이사회를 개최해 운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KBO와 10개 구단은 선수단 안전 관리와 구장 시설 방역, 열감지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